문화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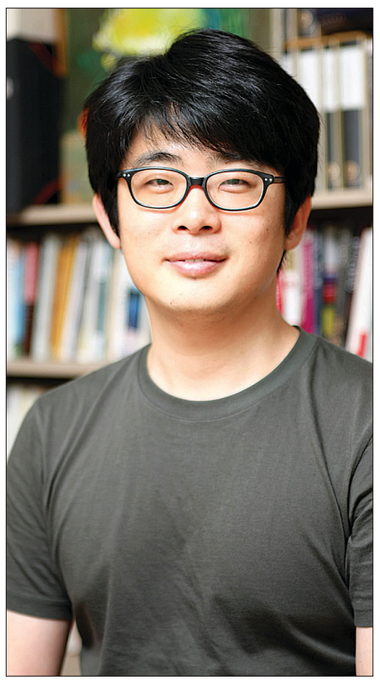
인간 내면 속 공포의 두려움 깊이 있는 표현 위해 3D 선택

한국 최초 3D 공포 영화 '터널' 연출한 박규택 감독

"공포 영화라고 해서 단순한 선악의 대결 구도로 스토리를 풀고 싶지는 않았어요. 공포는 외부적 요인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개인의 죄책감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이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개인의 업식이 발현되어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선인은 선인대로 이해가 가능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3D공포 영화 '터널'이 8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을 연출한 박규택 감독(33)은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2001학번)으로 '기억부검' 등 3D단편 영화를 거쳐 터널로 첫 메가폰을 잡았다. 한국 최초 3D 공포영화인 터널은 재벌 2세인 기철의 권유로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난 5명의 청춘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다. 기철, 영민, 유경, 세희, 은주는 관리자 동준의 안내로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한 사고로 김 씨를 죽이게 된다.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숨기려 향한 곳은 20년간 출입이 금지된 터널. 이곳은 폐광의 갱도로 남다른 사연이 숨어 있는 곳이다. 단 한 순간도 머물고 싶지않은 이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그 때, 어디에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그들을 향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또다른 사건이 벌어진다.

박 감독은 밀폐된 공간인 탄광촌 터널을 소재로 인간의 내면속에 내재된 공포심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단순한 공포보다는 그 공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배경이 탄광촌인 만큼 그 속에는 광부들의 애환이 서려 있을 거라 생각했죠. 또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장보살을 좋아해요. 온전히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처럼 이야기 속 주인공들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국 최초 3D공포 영화 '터널'이 8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출자인 박규택 감독은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메시지가 있는 공포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8월 20일 개봉… 폐광촌 주무대
영화에 불교 세계관 반영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전달

박 감독은 첫 장편영화 연출이다 보니 촬영기간 내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때문에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하지 않았다고. "어떤 마음으로 배우들과 스텝들을 대해야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영화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컸죠. 강원도에서 폭설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배우들 스케줄 때문에 촬영 일정이 꼬여 난항을 겪기도 했죠. 또 3D에 익숙하지 않은 스텝들의 부담감도 컸어요. 하지만 이 모두가 인연이려니 하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일하다보니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웃음)"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화감독이 꿈이었던 박 감독은 대학진학을 하면서 영화학과 대신에 불교학과를 선택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그는 아버지 박상진 교수(동국대 한국음악과)의 조언을 듣고 단번에 진로를 결정했다. "사실 대학입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불교학과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꽤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고 제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불교학과로 진로를 결정했죠.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다양한 세상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 감독은 '매트릭스'처럼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다. "사실 이번 영화는 회사에서 만든 기획 영화라 제 의견이 온전히 투영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차기작은 제 손에서부터 시작해 저의 사상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불교적 내용을 녹일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 최초 3D 공포영화 '터널'은 재벌 2세인 기철의 권유로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난 5명의 청춘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다.

스님이 시 읊으니 망상이 사라지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㉝ 봉선사 ㊤





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남양주 봉선사 경내 모습.

세조의 능침사찰로 사격 일신

봉선사(奉先寺)는 고려 광종 때의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에 의해 운악사(雲岳寺)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그 역사적 자취는 기록이 없어 희미하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인근에 조선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이 들어서고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크게 사찰을 중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른바 능침사찰로 정해지면서 희미하던 법등이 큰 빛을 발하게 된 셈이다.

세조와 정희왕후는 불심이 깊었다. 세조의 능침사찰로 봉선사를 중창한 나라에서는 절에 전답과 노비 그리고 돈을 내렸으며 세조를 위한 천도재도 크게 베풀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절의 현판을 친필로 써서 하사했다. 절의 이름은 '선왕의 능을 받들어 모신다(奉護先王之陵)'는 뜻에서 따 온 것이다.

이후 봉선사는 명종 때 전국 교종사찰을 관장하는 교종수사찰로 그 사세가 확대되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명종 7년(1552년)에는 봉선사에서 승과 고시인 교종시가 열려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교종 승려들이 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시대가 막을 내리며 불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봉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 임진왜란은 절을 더욱 피폐시켰고 스님들은 스러진 자리에 다시 불사를 일으켜 당우를 복원했다. 역사의 흐름은 성주괴공의 연속인 것이다.

봉선사가 보잘 것 없는 사찰일 때와는 달리 고관대작 선비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은 당연히 세조의 능이 들어선 이후부터다. 공무를 이유로 오는 선비들도 있고 유람삼아 지나는 길에 들린 선비도 있었을 것이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간 세조의 유혼이 조석예불을 하고 있을 봉선사에 들린 선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침옹령악(仙寢擁靈嶽)
격림린보방(隔林隣寶坊)
착락송계리(錯落松桂裏)
의관재소당(衣冠齋小堂)
설납출시전(雪衲出詩 》)
낭음진려망(朗吟塵慮亡)
추고상기중(秋高霜氣重)
산과퇴반향(山果堆盤香)
요단서초흘(瑤壇瑞醮訖)
귀로식선방(歸路息禪房)

왕릉은 신령스런 산에 에워싸여
저 건너 숲은 절집과 이웃했네.
새들은 소나무 계수나무 숲에서 울고
의관한 관리는 작은 집에서 재계하네.
흰 옷 입은 스님은 시 지을 종이 꺼내어
낭랑하게 읊조리니 망상이 사라지네.

하룻밤 묵으며 시를 나누는 운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도 공무로 광릉에 왔다가 봉선사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동행한 장유(張維 1578~1638)가 지은 시에 차운하여 시를 썼다. 관직을 맡은 선비들이 광릉을 들러 서로 시를 주고받은 것인데 그 무대가 광릉과 봉선사인 것이다.

비각교산리(閟閣喬山裏)
단청환련양(丹靑煥 梁)
백령조숙숙(百靈朝肅肅)
만목옹창창(萬木擁蒼蒼)
태석간신수(苔石看神獸)
총림과불향(叢林過佛香)
청시홀유증(淸詩忽有贈)
백수돈생광(白首頓生光)

교산 속에 정자각이 서 있거니와
단청의 빛 기둥 들보 환히 빛나네.
백 신령이 엄숙하게 조회를 하고
만 나무가 울창하게 에워싸 있네.
이끼 낀 돌 신수들의 모습 보이고
총림에는 불전 향기 스쳐 지나네.
맑은 시를 그대가 홀연 보여 주시니
흰머리의 내겐 문득 광영스럽네.

김상헌의 문집 〈청음집〉제4권에 실린 이 5언율시의 제목은 '광릉(光陵)을 봉심(奉審)한 뒤에 봉선사(奉先寺)에서 묵으며 동행한 판서 장지국(張持國)의 운에 차운하다'이다. 장지국은 장유를 말하는 것이다.

청음 김상헌이 광릉에서 볼 일을 보고 봉선사에 묵으며 장유의 시에 차운한 작품은 광릉과 봉선사를 수호하는 신령들을 빽빽한 나무숲으로 묘사하여 묘한 설득력을 얻는다. 거기에 능침의 석물들이 능을 보호를 하고 있으니 선왕의 능침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

불단에 피워놓은 향으로 봉선사의 청정성을 강조하고 시를 지어 보여주는 동행이 있어 마음은 더욱 흡족한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세도록 살고 있는 자신은 동료가 보여 주는 시 한 수에도 복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를 다 겪은 김상헌이고 보면 더 이상 거친 세파가 없을 정도로 곡절의 날들을 살았다. 전국을 누비며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는 많은 시를 남겼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므로 세조의 광릉에서 능침과 사찰을 둘 아니게 보며 서로 보호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가슴 가득 담아내는 것이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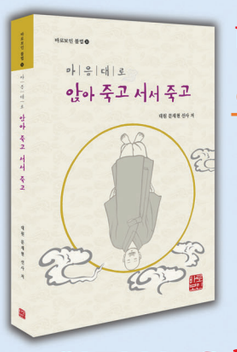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춘양당서점/충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6권의 저서 출간!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 죽고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바로보인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